

평판패널, 2010년 수출 343억달러

디스플레이사업단, 5년간 100% 신장 ... 세계시장 점유율 40.7% 달해

LCD(액정화면), PDP(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), OLED(유기발광다이오드) 등 평판패널 수출이 향후 5년간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.

차세대 성장동력 디스플레이사업단은 11월28일 <차세대 성장동력사업 기술개발현황> 보고서에서 평판패널 수출이 2005년 181억5000만달러에서 2010년에는 343억달러로 100%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.

세계시장 점유율도 2005년 37.1%에서 2010년 40.7%로 상승해 세계 1위를 지킬 것으로 전망했다.

아울러 디스플레이 장비 국산화율은 현재 30%에서 5년 후에는 80%로, 부품소재 국산화율은 40%에서 75%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측했다.

디스플레이사업단은 2006년 OLED·LCD용 핵심소재 개발, TFT-LCD 전공정장비 개발, 2007년 TFT-LCD 필름기술 개발, 사무용 OLED 기술 개발, 2008년 OLED용 전후 공정부품 및 장비, PDP 웹 공정장비 개발 등의 로드맵을 확정했다.

디스플레이사업단은 로드맵과 기술개발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, 5년 이내에 상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.

<화학저널 2005/11/30>